

보도 희망 일시	2025. 3. 31.(월) / 배포 즉시
문의	서울대 박물관
	권주홍 전화: 880-8092, 이메일: hahaha@snu.ac.kr

배포일: 2025.3.31.(월)

기획특별전 '이상(理想)과 일상(日常)' 개최

- 전시제목 : 이상(理想)과 일상(日常)
전시기간 : 2025년 4월 1일(화) ~ 6월 28일(토)
전시장소 : 서울대학교박물관 전통미술실(1층)
전시품 : <평생도 8폭 병풍> 등 38건 61점
- 서울대학교 박물관(관장 권오영)은 2025년 4월 1일(화)부터 기획특별전 《이상과 일상》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물관 소장 회화, 서예, 공예, 탁본 등 38건 61점을 선보이며, 전시를 통해 미술품 속에 담긴 옛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박물관이 2024년도에 구입한 신위(申緯, 1769-1847)의 <산수도>와 최근 보존수리가 완료된 <평양도 10폭 병풍>을 특별 공개합니다.
- 《이상과 일상》은 이상(理想)과 일상(日常)을 각각 주제로 하여 크게 2부로 구성됩니다. 1부 ‘글과 그림, 이상(理想)을 담다’에서는 과거의 글과 그림 속에서 발견되는 삶의 이상을 조명합니다. 평생도(平生圖)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염원했던 출세와 성공이, 고사인물화(故事人物畫)에는 옛이야기를 통해 전해진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비석에 새긴 기록과 이를 종이에 찍어낸 탁

본은 이상적인 삶의 궤적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랐던 옛사람들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 2부 ‘삶과 일상(日常)’에서는 미술에 담긴 옛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살펴봅니다. 조선 후기의 서화가들이 화풍과 화업을 계승하는 과정은 전통을 이어간 인물들의 발자취를, 동양의 가장 전통적인 그림으로 여겨졌던 산수화의 변화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달라진 화가들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또한 병풍으로 만들어진 회화식 지도,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남긴 편지글, 생활 공간을 장식한 아름다운 공예품들은 옛사람들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 특히 국가유산청 국유문화재 위탁관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보존수리를 완료한 <평양도 10폭 병풍>이 특별 공개됩니다. 조선 후기에 경제·문화적으로 크게 번성했던 평양의 모습은 다양한 형식의 그림으로 제작되어 유통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평양도 병풍’은 당시의 도시 경관과 구체적인 지리적 정보뿐만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당대인들의 모습까지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 이번 전시는 2025년 6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시된 작품들에는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당시의 생생한 일상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작품을 감상하며 그들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가 맞닿는 순간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주요 전시품 목록
- 2. 전시 포스터

붙임 1. 주요 전시품 목록

1부. 글과 그림, 이상(理想)을 담다	
	
<p>〈무관평생도 8폭 병풍(武官平生圖八幅屏風)〉, 20세기 초, 종이에 색, 각폭 화면 93.5×33.5cm, 서울대학교박물관</p>	<p>〈황초령 진흥왕 순수비 탁본(黃草嶺眞興王巡狩碑拓本)〉, 19세기, 종이에 먹, 화면 111.5×48.8cm, 서울대학교박물관</p>
<p>평생도는 돌잔치, 혼인, 혼인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回婚) 등 가정의 경사 및 과거 급제와 승진 등 관직 생활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시간순으로 구성한 그림이다. 평생도는 실존 인물의 개인적인 일생을 그렸다가보다는 사대부에게 기대되는 이상적인 삶의 일대기를 그린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작품에는 돌잡이, 활쏘기, 혼인, 과거 급제, 전투 장면, 전쟁에서의 승리, 병조판서의 행차, 회혼례의 여덟 장면을 통해 조선시대 무관武官의 이상적인 일생이 표현되었다. 한편 평생도는 오직 한국에서만 그려졌던 독특한 회화 장르이기도 하다.</p>	<p>신라 진흥왕(眞興王, 재위 540-576)의 순수(巡狩)와 영토 확장을 기념하여 세워진 황초령비(黃草嶺碑)의 탁본이다. 진흥왕은 황초령비 외에도 북한산비(北漢山碑), 마운령비(磨雲嶺碑) 등 여러 개의 순수비를 세우며 국경의 확장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 황초령비는 그 조각들이 유실되고 발견되는 과정을 거듭하다가 1897년 중수되어 새로 세워진 뒤 1931년에 마지막 잔편(殘片)까지 접합되었다. 현재 전시 중인 탁본은 황초령비의 중심부만 찍어낸 것이다. 탁본 주변에는 10명의 필자가 탁본의 수집과 이동 경위에 대하여 밝힌 제발(題跋) 13편이 적혀 있다.</p>

2부. 삶과 일상(日常)



〈평양도 10폭 병풍(平壤圖十幅屏風)〉, 19세기, 종이에 색, 각폭 화면 132.1×36cm, 서울대학교박물관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연암 선생 서간첩(燕巖先生書簡帖)〉, 1796-1797, 종이에 먹, 46.5×28.7cm, 서울대학교박물관

19세기 평양성 일대의 경치를 담은 10폭 병풍이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부감(俯瞰) 시점으로 성 안팎의 풍경이 그려졌으며, 주요 지형과 지물에는 명칭이 표기되어 있다. 화면 하단에는 평안감사(平安監司)의 부임 장면으로 추정되는 긴 행렬이 그려져 있다. 판소리 공연, 민속놀이, 강가에서 빨래하거나 낚시하는 사람들, 땀나무를 실은 배와 뱃놀이 장면 등 당대 평양 사람들의 일상이 곳곳에 표현되었다. 이러한 다채로운 풍속 묘사는 다른 평양도 병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 작품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박지원의 편지를 모은 서간첩이다. 박지원이 두 아들 박종의(朴宗儀, 1766-1815), 박종채(朴宗采, 1780-1835)와 처남 이재성(李在誠, 1751-1809), 벗 등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꾸밈없는 사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여느 아버지, 매형, 벗과 같은 박지원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사료로 평가된다.

붙임 2. 전시 포스터

